

# 유흥업소 집합금지 반발...힘겨움 알지만 방역 어찌나

### “과태료 내고 망하나 문 닫고 망하나” 광주 700여 업주들 영업 강행키로 이용섭 시장 면담 요구... ‘항의하면 완화해 준다’ 인식 속 해법찾기 고심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운영 중단’을 결정 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복, 영업을 강행키로 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이달 말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더 이상 버티내기 어렵다’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합리한 업종별 규제 방침과 ‘항의하면 정부가 풀어주더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와 광주시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게 방역 불복 사태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는 18일부터 광주지역 700여명의 유흥업소가 영업을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이 일제히 문을 열고 손님을 맞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17일까지 예정됐던 이들 5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이달 말인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

업주들은 “과태료를 내고 망하나 문을 닫고 망하나 마찬가지”라며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흥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측은 “유흥업의 경우

한달 고정비용만 600~700만 원이 발생하는데 영업을 못하니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다”며 “단속반이 모든 업장을 단속할 수는 없을테니 단속에 걸린 업소의 과태료를 회원들이 분담하면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업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업종별 규제 지침과 융통성 없는 조치도 ‘방역 지침 불복’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흥업주들은 “대도시의 경우 지난 16일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현장 상황 등을 감안, 유흥주점의 경우 밤 11시까지 영업을 가능한 지침을 내놓았다”며 “광주에는 현재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없는 데도 유흥업에만 과도한 방역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항변했다.

업주들은 또 “낮에 한 테이블에 앉아 젓가락으로 반찬·찌개를 함께 먹는 것은 괜찮고 밤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코로나에 걸리기 쉽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한다.

이들은 앞서 17일 이후 유흥업소 운영에 대한 추가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표시로 손님을 받지 않으면서도 가게 문을 열고 간판 점등 시위에 들어간 바 있다.

이들은 18일 광주시를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과 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전막농성에 들어간다는



광주 서구 유흥업소가 모여있는 상무지구의 간판에 불이 켜져있다. 시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 소속 회원들이 유흥업종 영업금지 조치가 2주일 연장되는 것에 반발해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항의하면 완화시켜주더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업주들의 반발을 의식, PC방과 노래연습장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한 바 있다. PC방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정상 영업을 들어갔다. 또 광주시 등

“노래방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한달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관련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업주들의 반발이 있는 지 나올 뒤에 노래연습장의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 당시 노래연습장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도 한동안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일부 업종 종사자들의 집

단행동이 완화된 방역수칙을 이끌어 냈다고 업계는 생각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인원별로 규제하는 등 상당수 업종이 공감할만한 구체화된 방역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해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수사 의뢰 두달...경찰은 ‘나 몰라라’

### 국군광주병원 ‘홍가 체험 영상’ 방치...소극적 수사에 모방범죄 초래

경찰이 5·18 사적지인 국군광주병원을 불법으로 침입해 제작한 ‘홍가 체험 영상’에 대한 광주시의 수사요청을 2개월 전 보고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모방 범죄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소극적인 수사로 추가 모방 범죄를 불러오는가 하면, 임의·선택적 ‘수사’ 방식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올해부터 갖게된 수사종결권을 보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19일 국군광주병원의 답을 넘어 들어가 병원 내부를 둘러보는 ‘광주국군폐병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사실을 확인, 서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두 달 가까이 해당 영상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제작자 형사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해당 영상은 10분 8초짜리로, 성인 남성 5~6명이 5·18 사적지인 국군광주병원으로 ‘홍가’로 안내하면서 공포 체험을 하겠다며 불법적으로 답을 넘어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8년 6월 올라온 뒤 지금까지

게시된 상태로, 광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한 시민 제보를 받고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서부경찰은 그러나 광주시 수사의뢰를 받고도 2개월이 되도록 ‘불법’ 행위를 홍보하는 영상을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관련자 형사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광주시에 수사요청한 것은 맞지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몰라 확인해봐야겠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대 대학생 3명이 지난 4일 불법으로 국군광주병원 답을 넘어 들어간 혐의(현주건조물침입)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유튜브에 올라온 홍가 방송을 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위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조치로 불법 영상을 따라 사적지를 무단 침입하는 모방 범죄가 빚어졌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모르겠다”면서 “사적지에 대한 감시 감시와 출입 통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화순군수와 친분 관계 활용해 관급공사 수주 청탁·알선 대가 역대 금품 받은 형제 법정구속

### “화순군 수사 미온적” 지적도

화순군수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 특정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청탁·알선한 대가로 역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법정구속됐다.

특히 법원이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서 불법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화순군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복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500만원, B(6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화순군의 ‘군도 7호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특정업체가 따내는 데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업체운영자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순군수와 친분이 있는 동생 B씨를 통

해 화순군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계약금액의 20%를 달라’고 특정업체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군수와의 친분을 활용할 수 의계약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청탁하고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화순군수와 수차례 통화를 했고 B씨 등은 화순군 담당 공무원들과 수 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청탁을 시도해 군의 업무집행에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화순군이 공법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특정 엔지니어링업체에 실시절계 용역을 맡기는 가 하면, 해당 엔지니어링업체는 다시 청탁을 시도했던 업체의 특허권법 자료를 받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게 재판부 분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사망 조선대 2억8700만원 배상 판결

조선대가 기도삽관 및 기관 흡입, 산소공급 조치 과정에서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숨진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는 숨진 A(사망 당시 생후 1개월) 양 가족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의료진과 학교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학교측은 2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양 가족은 병원 측이 기관 흡입 도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튜브가 빠져 식도에 들어가게 했고 이같은 의료진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돼 저산소증으로 학교측을 상대로 5억9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료진이 충분한 깊이의 기도 삽관과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고 산소포화도 하락 후 산소 공급 과정에서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삽관하지 못해 의료상 과실로 아기가 저산소증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아는 성인보다 기도가 매우 짧아 삽관 깊이를 맞추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학교측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 동구 대인동, 싼 땅

(주)신세계오피스텔 H. 010-3605-5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조정 가능)